

## “박지성 내일 출전”

선덜랜드전…퍼거슨 감독 “정상 기량 유지”

주말 복귀가 불발에 그친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6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선덜랜드전에 복귀한다고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공언했다.

퍼거슨 감독은 23일 밤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애버턴과 홈 경기 직후 구단 언론 담당관 캐런 쇼트볼트를 통해 “박지성은 1군에 합류해 현재 정상적인 기량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정돼 있는 선덜랜드전이나 베밍엄전에는 확실히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지성의 복귀는 빠르면 26일 스

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리는 선덜랜드전, 늦어도 내년 1월 1일 자정 올드 트래퍼드 홈 구장에서 펼쳐질 베밍엄전이 될 전망이다.

퍼거슨 감독은 “오늘 박지성이 출전하지 않은 이유는 박지성의 컨디션 보다는 경기 운영 면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말해 박지성의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현지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박지성 어머니 장명자 씨는 “19명 엔트리에 포함돼 호텔에서 합숙했는데 최종 16명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 인터 밀란 올 무패 행진

라이벌 AC밀란에 2-1 역전승

이탈리아 프로축구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챔피언 인터밀란이 라이벌 AC밀란과 ‘밀라노 더비’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시즌 챔피언 인터밀란은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에서 끝난 2007~2008 세리에A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AC밀란을 상대로 2-1 역전극을 펼쳤다.

인터밀란은 크루스의 크로스가 수비 머리에 맞고 허리 나온 뒤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에스테반 카비아소가 원발슛으로 골문을 열어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후 자존심 건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결국 후반 18분 승부가 갈렸다.

인터밀란은 크루스의 크로스가 수비 머리에 맞고 허리 나온 뒤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에스테반 카비아소가 원발슛으로 골문을 열어 뒤집기에 성공했다.

7점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굳게 지켰다.



## “수영 만큼 영어도 열심히 배워요”

박태환 호주 전훈서 영어 개인교습도 계획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사진)이 29일부터 5주 가량 진행되는 호주 시드니 전지훈련에서 수영 이외에 영어 실력을 가다듬는데도 힘을 쏟는다.

박태환 전답팀은 후원하고 있는 수영 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도’는 “전훈 기간 저녁 자유시간을 이용해 영어 말하기 및 듣기 개인교습을 받기로 했다”고 24일 전했다.

강사는 영어 교육 자격증이 있는 현지인으로 구할 계획이며, 한 번에 2시간씩 일주일에 3차례 과외를 받기로 했다.

주말 휴식 시간에도 강사와 시드니 시내 관광 및 쇼핑 등을 함께 하며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익힐 계획이다.

전훈기간 하루 7시간 정도의 맹훈련이 이어지지만 박태환은 스스로 영어 교습을 원했다.

지난 3월 멤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은 공동취재구역에서 외신 기

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기자회견장에서도 통역을 거치는 바람에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하지 못하자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자유형 400m 온메달을 딴 우사미 멜루리(뛰기수)의 경우 불어를 쓰며 자란 데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영어와 불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박태환은 이를 부러워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이후 박태환은 국내에서 꾸준히 영어공부를 했는데 이번 전훈 기간 과외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박태환은 생활 영어 말고도 인터뷰 기술도 중점적으로 배울 계획.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은 그랜트 해켓(호주)과 장거리 최강자 자리 를 놓고 다시 한번 대결을 벌이는데 외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 뻔하다.

당당히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박태환이 능숙한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 하인스 워드

### 플레이오프 ‘터치 다운’

NFL 피츠버그, 지구 1위 확정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1·피츠버그 스텔러스·사진)가 2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됐다.

워드의 소속팀 피츠버그가 24일(한국시간) 아메리칸콘퍼런스(AFC) 북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어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10승5패로 지구 선두를 질주 중이던 피츠버그는 이날 경기가 없었으나 지구 2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신시내티 벙갈스에 14-19로 패해 9승6패가 되면서 정규 시즌 최종전에 상관없이 지구 1위를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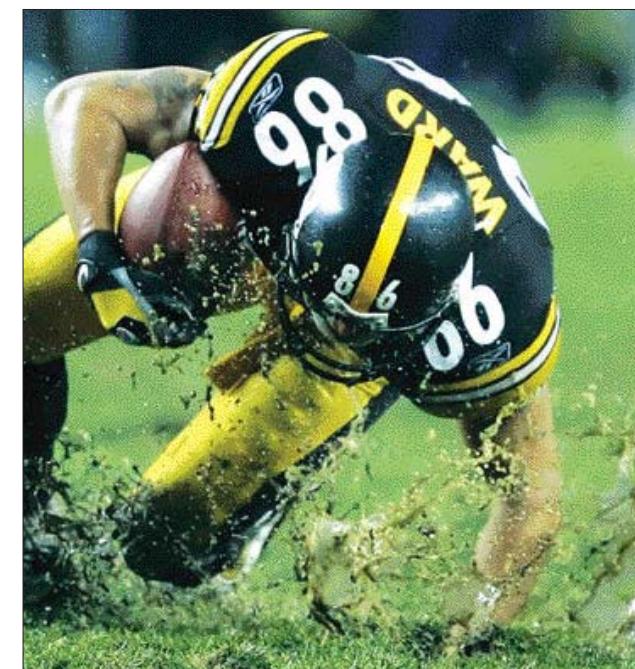
한 경기차인 피츠버그와 클리블랜드는 최종전 결과에 따라 동률을 이를 수도 있으나 피츠버그가 올해 클리블랜드에 2전 전승을 거둬 승자승 원칙에서 앞서면서 2004년 이후 3년 만에 지구 최강에 복귀했다.

2005년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나가 통산 5번째 슈퍼볼 정상을 정복했던 피츠버그는 지난해에는 8승8패로 지구 3위에 그쳐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다.

피츠버그는 31일 오전 3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M&T 뱅크 스타디움에서 볼티모어 레이ブൺ스와 최종전을 치른다.

콘퍼런스별 플레이오프에는 지구 우승 4팀과 그 다음으로 승률이 좋은 와일드카드 두 팀이 진출한다.

AFC에서는 피츠버그를 필두로 15전 전승 팀 뉴잉글랜드 패



트리어즈(동부지구),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남부지구), 샌디에이고 차저스(서부지구)와 잭슨빌 재규어스(와일드카드) 등 5팀이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었다.

뉴잉글랜드는 이날 마이애미 돌핀스를 28-7로 누르고 NFL 역사상 처음으로 15전 전승을 거둔 팀이 됐다.

이는 1972년 14전 전승으로 정규 시즌을 마친 마이애미 이후 두 번째이나 당시에는 14경기에 불과했기에 뉴잉글랜드의 족적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뉴잉글랜드는 31일 뉴욕 자이언츠와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이기고 여세를 몰아 슈퍼볼 정상까지 오를다면 19전 전승으로 역시 마이애미 이후 35년 만에 ‘페펜트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페트리어즈는 지난해 3연승 포함, 이날까지 정규 시즌 18연승을 내달리며 2003~2004년 자신들이 수립한 시즌 NFL 최다 연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또 이날 터치다운 4개를 보태 71개로 1984년 마이애미가 세운 한 시즌 최다 팀 터치다운(70개)을 넘는 신기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

## 올림픽 축구대표

### 내년 스페인 전훈

1월7일 출국…3주간 훈련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이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토대를 쌓았던 스페인 리망가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 대표팀의 내년 초 전지훈련지로 스페인 남부의 리망가와 마벨라 두 곳을 결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일정은 소집부터 해산까지 총 21일.

박성화 대표팀은 내년 1월 6일 오후 9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로 선수들을 소집한 뒤 다음날 오후 2시 리망가로 출국한다.

리망가에 도착한 대표팀은 8일부터 17일까지 전지훈련을 하게 되며 이곳에서 연습경기를 한 차례 치를 계획이다.

리망가는 거스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02년 3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월드컵 4강의 토대를 마련한 곳이어서 한국 축구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겨울철에도 기온이 높아 유럽 클럽을 비롯해 각국 대표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그만큼 친선평가전 상대를 찾기에 유리한 것.

리망가에서 열흘을 보낸 뒤 대표팀은 버스를 타고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마벨라로 장소를 옮긴다. 이곳에서 대표팀은 3차례 평가전을 가질 계획이다.

평가전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축구협회는 현지 에이전트에 유럽 지역의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로 주선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다.

스페인 리망가와 마벨라를 거치며 3주간 총 4차례 연습경기를 모두 마친 대표팀은 28일 오후 4시 귀국 할 예정이다.

## 프로축구 전북 현대

### 국가대표 이요한 영입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올림픽 축구대표팀 수비수 이요한(22)을 영입하며 내년 시즌을 앞두고 수비력을 더욱 강화했다.

전북은 “이요한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데려오고 대신 이정호를 내주는 일대일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프로에 입문했다가 올해 제주로 옮긴 이요한은 프로축구 63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 4년 차.

청소년 대표와 올림픽 대표팀을 거친 중앙 수비수인 이요한은 때로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어 전북의 전술 운용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특히 ‘수비의 핵’이었던 최진철(36)이 올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전남 드래곤즈에서 올림픽 대표 겸 국가대표 수비수 강민수(21)를 영입한 전북은 이요한까지 가세하여 중앙 수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요한과 강민수는 지난 10월 시리아와 올림픽 최종예선에서도 중앙 수비수로 호흡을 맞춰 탄탄한 수비력을 과시한 적도 있다.

글프·현대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b>록펠러 회원권</b>	
글	주
주	1,800
4,200	주
6,500	광
2,400	광
3,000	도
성인 문의 (062)351-0095	